

대덕소리 아카이브



대덕소리 아카이브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책머리에

대덕소리, 대덕에서의 삶을 기록하다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우리 주변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아니 가까이 90년대의 동네 풍경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마을 가운데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던 등구나무, 친구들과 놀았던 골목 그리고 양장점, 문방구, 이발소, 정미소, 방앗간 등. 풍경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도 대부분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몇 대에 걸쳐 또는 몇십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업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대덕소리 아카이브는 대덕구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아이들의 사랑방인 또바기어린이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곽운숙씨,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새일서적의 이분희, 고석천 부부, 목기공 3대 계승인 김용오씨, 술맛 좋기로 유명한 유씨종가의 가양주를 대중화한 신탄진주조 유황철씨, 2대째 신탄진에서 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옛날튀밥집 최용운씨의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기록해야 기억됩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 소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의 삶의 이야기, 직업에 대한 열정을 구술자료로 기록하였으며, 많은 사람들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올려두었습니다. 대덕구민의 삶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차

* 책머리에	3
01 동네 사랑방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7
또바기어린이도서관 곽윤숙	
02 책이 좋아서, 주민들이 좋아서, 대덕구가 좋아서	15
새일서적 이분희, 고석천	
03 아름답게 미쳐간다는 것은	23
고려공예 김용오	
04 좋은 재료와 물, 정성으로 빛는 가양주	29
신탄진주조 유항철	
05 소소한 즐거움에서 느끼는 빵! 소리 나는 행복	37
옛날튀밥집 최용운	
* 부록 - 구술자료 원본	
1. 또바기어린이도서관 곽윤숙	45
2. 새일서적 이분희, 고석천	53
3. 고려공예 김용오	61
4. 신탄진주조 유항철	69
5. 옛날튀밥집 최용운	79

또바기어린이도서관 **곽윤숙**

또바기어린이도서관(신탄진로 218번길 53, 2층)

2007년 개관, 2020년 리모델링



또바기어린이도서관 곽윤숙 관장

동네 사랑방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저는 또바기어린이도서관 관장이자 동화구연가 곽윤숙입니다. 또바기어린이도서관은 2007년 3월에 사랑의열매, 사회공동모금회에 지원받아서 개관한 대전시의 5개 도서관 중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스스로, 엄마들이 키우자는 목적 아래 설립되었어요. 저희끼리는 공공형 사립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치는 와동현대아파트 맞은편 상가 2층이고, 동네 어린이들이게 책 친구도 만들어주고 책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바기어린이작은도서관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공간이에요. 제가 이 도서관의 관장이기는 하지만 저 또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제가 처음 또바기도서관을 찾게 된 이유는 2014년도에 그림책을 공부 중이었어요. 동화구연가라는 직업 특성상 많은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우리 마을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또바기어린이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어요.

또바기어린이도서관은 유아부터 초등학생들까지 방과 후 자연스럽게 모이다 보니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그렇게 마을 엄마들도 모이고 공동육아도 이뤄졌어요. 저희 아이들도 도서관에서 도움도 받고 혜택을 받다 보니 저도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또바기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어른, 학부모,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마을의 사랑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도서관에 찾아올 수 있게 2009년도에 대전에서 실시하는 시민공유공간사업을 신청했어요. 리모델링 작업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이 공간은 도서관이다 보니 책을 주요 매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건 책 놀이예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미술 놀이, 과학 놀이, 음악 놀이, 전래 놀이 등을 책과 연관 지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대에 발맞춰 2022년도에는 대전평생학습진흥원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등도 추가해 교육적인 측면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이후로 못 하고 있지만 또바기어린이도서관을 주축으로 마을 축제도 진행했어요. 아이들이 사장이 되는 벼룩시장, 텐트를 치고 책을 읽는 프로그램, 연극 등 다시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 너무 아쉽네요.

제 본 직업은 사단법인 색동회 대전지부 소속 동화구연가입니다. 잠시 색동회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어린이날을 만드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 인권운동과 문화운동을 위해 1923년 결성한 단체로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란 생각을 가지고 동화와 동요를 만들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하자'가 주된 목적인 어린이문화운동 단체입니다.

아직 동화구연가라는 직업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동화구연가라는 직업을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동화를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어주는 직업이에요. 아이들에게 동화를 생동감 있게 읽어주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동화구연가로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요양원 등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도서관이나 학교에 가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와 관련된 동요도 부르고, 놀이도 하면서 그림책의 주제와 목적을 아이들이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형극이나 아동극을 하며 참여형 연극도 하고 있어요. 연극을 하면 아이들이 책 속의 인물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더욱 쉽게 받아들여서 반응이 참 좋아요.

사실 저는 동화구연가 이전에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동화구연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태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는 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가서 동화구연가 교육을 듣고, 대회도 나가고, 입상하면서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제가 동화구연가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책이 있는데, 그림책 '점'이라는 책이에요. 책 내용은 단순하지만, 이 그림책이 전하는 감동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아이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아요. 하지만 아이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도화지에 점 하나를 찍어가요. 당연히 혼날거라고 생각한 아이는 걱정하지만, 미술 선생님은 아이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미술 선생님은 아이가 가져온 그림을 정성스레 액자에 담아서 정말 좋은 그림이라며 아이를 칭찬해줘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이 책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동화를 들려줬던 아이들이 사실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점'의 미술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의 성품이나 능력을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끼게 해준 책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대전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유아문화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치원에 찾아가 효에 관한 전래 놀이, 효 놀이, 연극 놀이, 미술 놀이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딱 4번 만나는 건데 아이들이 마지막 시간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괜스레 마음이 뿌듯해지곤 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런 애

기를 들으면 고맙고 또 미안해요. 예쁘게 대답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밝겠구나 싶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또바기도서관을 찾게 되었지만, 2018년도에 후임 관장으로 지목되어서 총회를 걸쳐 관장직으로 선발되었어요. 관장직을 맡게 되니까 책 읽기 봉사 보다는 프로그램 기획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지만 다행히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발전된 모습을 갖춰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대덕구 와동은 재개발이 끝나질 않아서 외부로 유출되는 가정이 많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곳은 순수하게 봉사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요즘 외부로 나가는 인원이 많아서 걱정이예요.

대덕구는 문화나 여러가지면에서 조금 열악하지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정경운 동네거든요. 빨리 재개발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재개발이 끝나서 많은 가정이 유입이 되어서 아이들이 또바기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밝은 마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일서적 이분희, 고석천

새일서적(신탄진로 819)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 책을펴자 독서문화캠페인 참여



새일서적 이분희, 고석천 대표

책이 좋아서, 주민들이 좋아서, 대덕구가 좋아서

<이분희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고석천과 함께 1988년 4월 30일부터 사업 등록을 마치고 지금까지 새일서적이라는 서점을 운영하는 이분희입니다. 저희 새일서적은 크게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책이 좋아서 시작한 작은 동네서점이에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에는 인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사장님이 신탄진이 고향이시고 또 시댁과 함께 살게 돼서 신탄진으로 오게 됐어요.

신탄진에 처음 내려왔을 때는 서점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장님은 그때 회사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저도 다른 직장을 다니려고 했는데 둘 다 일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던 중에 책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책을 좋아하고요. 그렇게 서점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사업 등록을 마치고, 남편이 아닌 남동생이랑 함께 했어요.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사장님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부 둘이서 함께 본격적으로 서점을 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퇴사하고 같이 서점을 하게 되었을 때, 크게 반대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부부가 같이 일하면 틀림없이 싸울 거라고 하면서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크게 싸울 일은 없었어요. 이제는 친구들 모두가 저를 부러워해요.

신탄진에 저희 서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큰 서점이 두 번이나 들어왔었고, 책 대여점도 있었거든요. 다른 서점들도 계속 신탄진에 생겼고요. 신탄진에 7~9개 정도 서점이 있었는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나둘 사라지다 보니 저희 새일서적만 남게 됐어요. 서점과 대여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만둘까 싶은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돈이 좋아서 서점을 시작한 게 아니라 책이 좋아서 시작한 거고, 아이들이 책을 쉽게 접했으면 해서 시작한 서점이라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구입처가 다양하긴 하지만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은 책을 사러 가기가 힘드니까 계속 서점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손님도 많았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겼어요.

타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주말이 아니면 시간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는 교회를 다녀서 주일에는 서점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 아이들은 주말이 아니면 책을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점을 열어주곤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때 학생이었던 아이들이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와 함께 서점에 찾아와요. 명절이나 고향에 내려올 때 찾아오니까 보면 반가워요.

서점 위치가 처음에는 굴다리 쪽에서 서점을 했어요. 90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와서 34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서점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시설을 고쳐야 하는데 손님들은 옛날 느낌이 나서 좋다고 고치지 말라고 해요. 저희 서점을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장소처럼 얘기해줘서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유혹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석천 대표>

서점 위치가 신탄진역 근처니까, 큰 메이커 의류 브랜드나 카페를 차리시려는 분들이 권리금을 드리고 이 자리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희까지 서점을 안 하면 신탄진에는 서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부끼리 상의했을 때, 그 돈 조금 더 벌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도 얘기하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돈 보고 서점 시작한 거 아니지 않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것보다, 여기 와서 노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다 보니까 다른 서점들이 사라지면서 어려웠을 때보다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게다가 구청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학교나 관공서에서 책 구입 필요할 때 외부에서 책을 구입하지 말고 동네 서점에서 구입하도록 장려해주셨어요.

그리고 책 구입하고 싶지만, 사정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책을 펴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점도 있었지만, 책을 읽고 싶어도 도서관에 가기 힘든 분이나 책을 구입하고 싶어도 사정이 어려운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해야겠다 싶었어요.

책을 사 가실 때 활짝 웃는 손님들 표정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지금도 이 캠페인 다시 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서 얘기한 것 처럼 저희한테는 어려운 부분이나 번거로움도 있거든요.

구입이나 반품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책을 주민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하니까, 또 좋은 캠페인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성격이 구청일이나 동사무소 일이나 동네일은 가능한 협력도 하고 제가 먼저 나서서 추진하려고 하는 편이라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은 많이 하고 싶어요.

대덕구는 살기 좋은 동네예요. 한 곳에서 서점을 오래 하다 보니 주민들에게도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손님 중에 여기까지 나오기 힘든 분들에게는 서점 문을 닫고 직접 배달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소외된 분들에게는 조금 할인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저희는 언제까지고 이 자리에서 서점을 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언젠가는 서점을 그만둬야 할 순간이 올 텐데, 그전에 좋은 사람 중에 서점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서 신탄진에 서점을 남기고 그만두고 싶어요.

책이 좋아서 시작했고, 여기 동네 사람들이 좋아서 그만두지 않고 유지했으니까요. 저희가 아니더라도 책을 좋아하고 신탄진을 사랑하는 사람이 서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전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고 싶어요. 저와 제 아내는 다른 곳에서 노는 것보다 아직 서점에 나와서 노는 게 더 즐겁고, 또 저희를 필요로 해주시는 분들이 아직 있으니까요.

고려공예 김용오

고려공예(덕암로181번길 46-1)

3대 100년째 이어오는 전통목기 기업
대전무형문화재 제24호 김인규 목기장 전수자, 옷칠 봉인함 개발
국가지정 대한민국 전통목기제작 3대 계승자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제07-07호



고려공예 김용오 대표

아름답게 미쳐간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공예 대표이자 목기공 3대 계승인 김용오입니다. 저희 고려공예는 1900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3대째 고려공예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대전무형문화재 제24호이신 김인규 장인은 자식 된 입장으로 자랑을 조금 하자면 17세 때 대전에 상경하셔서 목기에 미치셔서 생애를 목기에 전부 바친 분이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나무가 어디 지역에서 자라고, 몇 년을 살았고, 어느 방향으로 자랐는지까지 다 아세요.

앞서 얘기한 저희 아버지가 미쳤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름답게 미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서는 목기 장인으로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장인일 거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군대 복무 시기를 제외하면 계속 아버지와 함께했는데요. 아

버지를 보면 장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딱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고 계실 때면 전화가 오든, 손님이 오든 일정 상대하지 않고 오로지 작업에만 집중하세요. 혼과 정을 그 한 작품에 쏟아 내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대단하다고 느껴요. 저도 열심히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모자란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사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지, 목기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가끔 방학이나 시간이 있을 때 도와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게 될 기회가 생겨서 일본에서 몇 년 정도 생활했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우동이나 라멘집 같은 경우 4대다 5대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간판을 걸어뒀더라고요. 손님도 많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도 100년이 넘는 집인데 여기서 명맥이 끊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회갑 잔치 때 하고 싶다고 얘기 드렸어요. 어머니가 크게 반대하셨어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힘든 길을 걸냐고 하시면서 참 많이 우셨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던 일 딱 그만두고 이쪽 길로 들어섰죠.

이쪽 길로 들어선 뒤에 우여곡절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에서 느꼈던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부정 속에서 긍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내려놓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 입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깐 열심히 해야죠. 다만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건 조금 더

일찍 이쪽 길로 접어들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세상에 힘든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서 마음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니까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하나 원인을 잘 찾아서 보완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될 때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며, 마음이 행동을 돕고 행동이 마음을 도와주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는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주위에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처럼 미치지 못하고 미쳐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꾸준히 제 할 일을 하면서 노력하다 보니 2021년에는 운 좋게 백년소공인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뛰어나신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발표하는 날은 뜬눈으로 날을 지새웠어요. 답사를 오신 분들이 한 가지 일을 이렇게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 감동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선정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목기를 세계적으로 더 알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를 잇는 거예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본인들이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본인이 선택하고

행동해야 책임감이 생기니까요.

두 번째는 족담기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전통 방식을 그대로 살려서 사용하는 곳은 이제 저희뿐이거든요. 전통문화의 명맥을 유지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목기 박물관을 짓는 거예요. 설계랑 기획은 하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문화재 리폼도 하고 고대 목기도 구입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대덕구는 문화적으로 뛰어난 곳이니까 전통문화, 현대문화가 잘 융화되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덕구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5대 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덕구에 33년째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소외된 곳이라고도 생각해요. 떠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정해서 무언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문화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단편적인 게 아니라 지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탄진주조 유향철

신탄진주조(신탄진로 738번길 128)

2001년 신탄진양조장 설립, 유씨종가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을 그대로 전수
받은 전통주 제조, 산막 생 쌀 막걸리, 대덕주 등 출시,
2014년 대전대표 막걸리 선정



신탄진주조 유황철 대표와 생산중인 전통주

좋은 재료와 물, 정성으로 빛는 가양주

안녕하세요. 저는 신탄진주조 대표 유황철입니다. 저희 신탄진주조는 2001년 산막이라는 동네에 위치한 산막 양조장을 인수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산막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다가 2016년에 신탄진로 738번길 128번지로 이전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생유막걸리, 가양주를 제품한 대덕주,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한 청주 세가지 종류의 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신탄진주조의 토대가 되는 대덕주는 유씨종가의 가양주를 제품화한 것입니다. 유씨종가는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서탄리에서 6~7대가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다가 대청댐 공사로 인해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유씨종가는 가양주를 제사에 올리고, 농사철에 새참으로 대

접했습니다. 술맛이 좋은 걸로 유명해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집 안일과 관계없는 분들도 참 많이 오셨습니다. 이 좋은 술맛을 우리 집안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만 알고 마시기에는 아깝다는 생각과 더 많은 사람이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술 한 잔에 어머니가 계속 기억됐으면 좋겠고, 어머니의 편한 품처럼, 어머니가 빚은 술 한 잔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약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담갔던 술을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정이 까다롭지 않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면서도 맛이 일정해 사람들이 쉽게 찾게 되는 술 제조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한 제품이 막걸리입니다.

술맛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마셔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알지만 멀리서 찾아오진 않을 테니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소문을 타고 막걸리 판매에 탄력이 붙어서 가양주를 상품화하는데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조장을 설립하고 3년 만인 2004년에 유씨종가의 가양주를 '큰 덕으로 빚은 술'이라는 뜻의 대덕주로 재탄생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현상 유지만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입맛은 계속 바뀌니까, 저희 주도도 변화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더 좋은 술을 제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대덕주를 기초로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는 중에 일체의

감미료 없이 만들어진 술이 단상지교와 하타입니다.

단상지교는 어르신들과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전통주는 찹쌀과 누룩으로 빚어서 명절이나 경사가 있을 때 즐겨 마시던 술입니다. 하지만 누룩의 향 때문인지 젊은 층은 전통주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전통주를 즐길 수 있는 술을 제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개발한 술이 하타입니다. 하타는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쌀로만 빚어, 단상지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미 없이 오랜 숙성 과정을 거쳐 주조하고 있어 누룩의 향이 나지 않는 맑은 청주입니다. 향에 거부감을 느끼던 젊은 층도 즐기기에 좋은 전통주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양주인 대덕주를 기초로 만들어 낸 이 두 술은 저희 신탄진주조에서만 만들 수 있는 술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제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가 다른 주종에 비해 인기가 없어졌을 때는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쯤부터 생막걸리가 유명해지고 여러 매체에서 홍보가 되면서 저희 신탄진주조의 규모도 점점 커져, 인력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3D 업종이다 보니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모여 가족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일을 자식들이 한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편치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 일을 감당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전혀 다르게 점점 주조에 깊게 빠져드는 자식들을 보며 금세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 노점옥 여사와 큰아들 유석현, 작은아들 유진현 그리고 큰 며느리 이지영까지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 주조에 대한 열정으로 푹 푹 뭉쳐있습니다.

서로 주조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 방법을 의논하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주조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45년 정도를 대덕구에서 지냈습니다. 대청호와 계족산 황톳길도 있고 소기업들도 많이 입주해서 사는데 참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이처럼 저희 신탄진주조도 많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전통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큰 기업이 아닌 가족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원재료비, 개발비 등 중소기업이 모두 감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하고 있지만 판로개척이 어려워서 출시하지 못한 제품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제품이고 기발한 기술이지만 선보이지 못해 아쉬운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직매점으로 지역의 식당이나 주점으로만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닌 인터넷 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류 중에 유일하게 전통주만 인터넷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계속해서 판로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은 홍콩에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차 홍콩이 아닌 다른 해외지역까지 전통주를 널리 퍼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탄진주조가 무궁무진하게 성장해서 싸고 맛있는 술을 소비자분들께 제공할 수 있다면 마냥 꿈만 같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든든하게 버텨주는 자식들과 큰 며느리가 있으니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다음으로 신탄진주조를 경영할 자식들이 늘 최고의 정성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봉사도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을 손에서 놓기 전까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좋은 재료와 물, 정성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앞으로도 주조에 대한 열정으로 "내가 먹는 술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튀밥집 최용운

옛날튀밥집(석봉로 37번길 60-10)

1971년~, 3대째 운영



옛날튀밥집 최용운 대표

소소한 즐거움에서 느끼는 땡! 소리 나는 행복

안녕하세요. 저는 신탄진에서 땡튀기 가게를 운영하는 최용운이라고 합니다. 저희 옛날튀밥집은 신탄진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30년, 제가 23년 총 53년을 땡튀기 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하는 튀밥집을 이어받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끔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는 게 전부였죠.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튀밥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취직할 나이가 되니까 마땅한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직장을 다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선은 튀밥집에서 일하면서 생각해보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게 됐어요.

이 일이 저한테 잘 맞는지, 일을 깊게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게 느

껴졌어요. 빵기계를 당길 때 느껴지는 손맛도 좋지만, 뻥히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곡식을 제품으로 개발하는 그 과정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무언갈 만드는 일을 좋아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빵튀기도 만드는 거잖아요. 빵튀기 가게를 하려면 곡식을 튀길 줄 아는 건 당연하고, 제품을 개발하려면 기계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야 하거든요. 무언갈 만드는 작업이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 없던 걸 만들려면 기계도 새로운 게 필요하니까요. 남들이 백 개 중에 구십 개 그냥 기계에 넣어서 튀긴다고 하면 저는 나머지 열 개 가지고 항상 씨름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그 고생을 왜 하냐'고 생각 할수도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시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새로운 시도에 성공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항상 똑같은 곡식은 가져오시는 게 아니에요. 쌀, 보리, 옥수수, 떡국떡 등 다양한 곡식을 가져오시는데 맛있게 튀겨드려야 또 찾아오시니까. 손님들이 빵튀기를 드시고 맛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찾아오시면 참 기쁘고 보람찬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으니까 단골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기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찾아오세요. 아버지 때부터 이용하셨던 손님들이 찾아오시면 너무 감사하죠.

어렸을 때 뷔던 분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와주시는 손님들이 튀밥집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신탄진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이 지역을 뜬 적이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생각하는 데 덕구는 주민들 인심도 좋고, 말수가 적긴 한데 깊게 사귀면 서로 잘하고 의리가 있어서 좋아요. 사람들 성격이 금강처럼 유순하게 잘사는 것 같아요. 정 깊은 동네예요.

저처럼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 이상 사소한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아무리 좋아해도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빵기계가 큰 압력 통이다 보니까 기계가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부서져요.

대중적인 가전제품이면 모르겠지만 빵기계를 고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예요. 부분적으로 고장 나면 공장에 가기도 뭐하니까 공업사 같은 데 가서 맞는 부품을 맞춰와요. 근데 빵기계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니까 부품을 맞춰오는 것도 일이죠.

그리고 빵튀기 장사를 한다고 하면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은 은퇴하면 소일거리로 하는 게 빵튀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 곡식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버리기 아까운 곡식들도 가져오시거든요.

물 먹은 콩은 특성이 달라져서 튀기기가 어려워요. 묵은 누룽지 같은것도 튀기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어려워도 맛있게 튀겨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재료를 더 맛있는 게 만들어준다는 건 요리사랑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생각이 저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 아쉬울 때도 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하지만, 전에 한 번 손님 중에 한 분이 자식한테 튀밥집을 물려줄 생각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선뜻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주위 사람들 시선이 그러니까. 제 자식이 그런 시선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아들이 사회 경험을 좀 해보고 튀밥집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먼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들이 먼저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거니까요. 그럼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죠.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자리에서 계속하고 싶어요. 트럭에 뺑튀기 기계를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꽤 많지만, 이렇게 한자리에서 오래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으니까. 더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장사도 더 잘 되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추수철이 비수기였지만 기후에 따라서 비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옥수수, 쌀 같은 건 미리 튀겨두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강정을 팔아요. 쌀이나 깨 같은 걸로요. 갓 튀긴 거랑 마트에서 쌓아두고 파는 건 다르니까. 웬만하면 바로바로 튀겨서 드리고 싶어요.

미숫가루 같은 경우에도 보통 미리 다 갈아놓고 팔잖아요. 그러면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성분표 같은 걸 읽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

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갈아두지 않고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게 투명한 통에 담아둬요. 추가하고 싶은 곡식이 있으면 추가도 할 수 있고요. 금방 갈아드릴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가져가시는 분도 많아요.

아직 개발 중인 여러 가지 빵튀기들도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다양하고 색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맨날 뻘한 것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계속 발전해가야죠.

부록1. 또바기어린이도서관 곽윤숙 구술자료 원본

-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관장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 네 저는 지금 또바기어린이도서관 관장으로 있는 곽윤숙입니다.

또바기어린이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에요?

- 또바기어린이도서관은요 2007년 3월에 대전시에서 다섯개의 도서관이 사랑의열매, 사회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스스로 엄마들이 키우자는 목적 아래에 설립된 도서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사립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건가요?

- 네 저희 여기 공식적으로 쓰는 건 없지만, 저희들끼리는 공공형 사립작은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공성을 갖는 거죠.

혹시 또바기어린이도서관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 저는 그전에 직업이 동화구연가와 그림책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림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봐야겠는데 다행히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서 그림책을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동화구연가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조금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동화구연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결혼 안 해서 가지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동화를 입말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다 알아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항상, 책을 읽어 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직업인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재미있게 읽어 주는 직업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동화구연가가 돼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특별히 돼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저도 이제 결혼을 늦게 하면서 임신을 하면서 태교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동화가 필요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태교를 하려고 문화센터에서 등록을 하고, 배우고, 또 계기가 돼서 대회도 나가고, 입장을 하면서 전문가의 길로 걷게 되었죠.

또바기어린이도서관에서, 와동 마을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사업 소개랑 그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거 이야기해 주실래요?

- 저희가 또바기어린이도서관이라고 어린이 명칭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마을 주민 누구라도 다 이곳에 와서 사랑방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

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오고, 학부모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마을 작은 도서관의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쉬시라는 의미로 여기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2009년도? 대전시에서 하는 시민 공유 공간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작업을 했고,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독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책놀이. 책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미술 놀이도 하고 과학 놀이, 음악 놀이, 전래 놀이 다양한 놀이를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인기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근래에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후원이 돼가지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교육 쪽도 많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점인 거 같아요.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사실 운영하시면서 관장님이시지만 동화구연가로 처음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 같아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여기는 다 100% 순수 봉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간 내는 게 가장 어렵고, 또 여기도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도서관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이 동네가 재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유출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봉사하셨던 분들도 다 나가고 그래서 봉사자도 부족하고 마을에 어린이가 예전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든 점인 거 같아요.

도서관 운영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럴 때 동화구연가라는 직업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그럼요. 동화구연가라는 건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지만 가장 많이 만나는 연령대가 어린이다 보니까 어린이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도서관에 오는 것도 어린이를 만나기 때문에 그들을 더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할 수 있고, 책을 읽어 줄 수 있고, 또 그들의 부모님 하고도 저도 학부모이다 보니까. 같이 어려운 거 공유하고, 또 나누고,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거 같아요. 이제 단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일하면서 이 봉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좀 아쉽고 힘든 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동화구연가 이시다 보니까 동화를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거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동화, 좋았던 동화

-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여기가. 가수보고 노래하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것처럼 뭐를 해드려야 될까요. 그냥 간단한 거로 하면은, 그냥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나무꾼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 아저씨는 아내가 해주는 점심을 싸 가지고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오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하려니까 너무 그럴 거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좋았던 동화책 소개 정도만 해주셔도 될 거 같아요.

- 책 소개? 차라리 책 소개를 그림……. 제가 동화구연가로써 아 이 길을 가야겠다고 느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점’이라는 책이에요. 점. 그 내용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아이가 미술 숙제로 그림을 그려 오라고 했는데,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냥 도화지에다가 점 하나만 딱 찍어요. 그런

데 그 미술 선생님이 그 그림을 액자에다 넣어주고 ‘정말 훌륭한 그림을 그렸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능력이 다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줬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성과 능력? 이런 걸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느끼게 해준 책임입니다.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건 콘서트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관장님이…….

- 아, 그런 일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도서관이나 학교 이런 데 가서는 동화책을 들고 가요. 그림책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그림책을 읽어주고, 대상마다 다르지마는 그거와 관련된 동요도 같이 부르고, 그거와 관련된 놀이를 하고 주제, 목적 이런 걸 알아가는 것. 그게 동화구연가 요즘은 명칭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런 일은 기본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발전적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동화를 가지고 연극 공연까지 올려요. 인형극도 하고, 아동극도 해서 아이들과 공연 관람도 할 수 있도록 참여형 연극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돌아다니실 때 뿌듯할 때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떨 때인가요?

- 유치원 아이들이 가장 뿌듯하게 하는데, 지금 제가 또 대전문화재단에서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해요. 그럼 유치원에 가서 4차시 동안 효(孝)와 관련된 주제로 아이들과 이런 전래놀이, 책 놀이, 연극 놀이, 미술 놀이 다 진행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 차시가 되면은 딱 네 번 만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슬퍼서 꼭 안아주면서 “가지 마, 또 오세요.” 이럴 때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거죠. 뭐.

약간 어린이들의 순수한…….

-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좀 던졌을 때 6살,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는 아이들이 기특하면서도 어른인 저로서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표현을 보면 또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 도서관에 계실 때는 보통 주 업무는 어떻게 되시는지.

- 원래는 책을 그림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어서 왔어요. 한 1~2년은 그게 됐는데 관장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 업무를 봐야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기획 또 여기가 공공형 사립 도서관이다 보니까 지원이……. 사실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운영이 돼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책하고 문구류가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운영자의 입장 관리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아쉽긴 하죠. 책을 생각처럼 많이 못 읽는 게.

혹시 대덕구에서는 조금 오래 사셨어요?

- 저는 거의 토박이라고 봐야죠. 둘 때 이사 왔다고 하니까 중간에 일한다고 3년 나가 있는 거 빼고는 계속 살았고 결혼도 해서 여기서 계속 살

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생각하는 대덕구는 혹시 어떤 장소? 어떤 공간? 어떤 지역?

- 솔직히 문화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열악하죠. 당연히 열악하고 학교도 그런 문화도 공간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타지역으로 떠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평생 여기서 살아와서 그런지 여기가 제일 편하고, 제일 공기도 좋고, 일단 뒤에 대청댐도 가깝고, 계족산도 있고 그래서 공단이 있어서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자연이 옆에 있고, 가족들 있고, 친구들 있고 그러니까 그냥 편한 곳? 편한 곳인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로 또 직업도 여기서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니까. 다른 구로 이사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도서관을 지켜나가실 거잖아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 바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가 재개발이라 아이들 유출이 많아요. 많은 가정들이 유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빨리 재개발이 끝나서 많은 가정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학교에도, 마을에도, 동네에도 아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만큼 또 살기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많이 개선해 나가야겠죠?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로는 도서관의 관장으로서 이곳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처럼 재개발 때문에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 봉사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음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그 아프리카 속담처럼 예전처럼 지금 아파트 문화인데 옛날 골목 문화처럼 같이 마을 주

민들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에, 사랑방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마지막으로 추가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관장님께서 직접 기획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짜신다고 하셔서 혹시 아까 이야기하신 거 말고, 조금 기억에 남는 내가 이런 걸 기획했는데. 이걸 조금 친구들 반응도 그렇고 조금 특별했던 것 같다 싶은?

-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저희 도서관이 주축이 돼서 항상 매년 마을 축제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못 하고 있어요. 축제를 하면 아이들이 사장이 되는 벼룩시장하고, 회덕중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책 읽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전래놀이도 하고 그리고 인형극 공연도 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난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째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아쉽네요. 네.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2. 새일서적 이분회, 고석천 구술자료 원본

간단하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 네 저희들은 1988년부터 4월 30일예요. 사업 등록을 마치고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혹시 새일서적은 어떤 서점인가요?

- 크게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그냥 책이 좋아서 서점을 시작했고, 그냥 책 좋고 손님들이 오실 때에 가족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동네 분들이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새일서적이 신탄진에 있잖아요. 여기서 운영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저희 원래는 저 결혼하고 우리가 인천에서 살았는데. 우리 사장님이 여기 신탄진이 고향이시고, 또 시택에 같이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 사장님이 회사를 다니셨었는데. 우리 아기들을 떼어놓고 저도 직장을 다니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되겠어서 서점을 운

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해서 서점을 하게 되었어요.

- 그럼 처음에는 남편분께서는 회사를 다니시고, 사모님께서 혼자서 하셨던 거예요?

- 아니요. 남동생을 데리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우리 남동생 데리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책 구입 문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옛날에 여기 코카콜라라고 있었어요. 거기 근무하시다가 그만 두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본격적으로 같이…….

한자리에서 사실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하셨다고 하셨죠?

- 34년째.

34년 동안 자리를 지키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어떤 때셨어요?

- 우리가 서점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도서 대여점이 생겼어요. 그러고는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우리가 꾸준히 참고 애초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책을 이 서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돈 계산은 안 하고 책이 저희가 좋아서 했고, 애들을 책 속에서 키우고 싶어서 했던 거라서 이곳에서 돈을 계산했으면 이 자리에서 서점을 안 하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애들도 그냥 서점만 계속하자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서점을 하는 중에, 여기 가까이에 큰 서점이 두 번 생겼다가 없어졌어요. 역전 2층에도 서점이 생겼다 없어졌고, 시장 안에도 여기서 얼마 육교만 넘으면 되는데 거기에도 한 60평 이 정도 큰 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이거를 더 해야 되나, 그만되어야 되나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만 하면 되니까, 그 생각으로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신탄진

에 한 일곱, 여덟 군데 있었어요. 서점이 학교 앞 서점도 있고 막 그런 데 다 어려워지니까 다 그만뒀어요. 우리가 한 3년 전에 우리가 그만두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문고하고 신탄진고등학교 앞에 있던 나머지 세 군데가 남았었는데, 그 양쪽이 먼저 그만뒀어요. 저희보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우리까지 참 없애기에는 신탄진에 서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까지 우선은 하고 있다 보면 글썽, 누가 하려나 안 하려나는 모르겠어요.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손님 중에 서점 그만두면 안 돼요.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기동력이 있고 좀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인터넷 구입처가 그래도 나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소위된 그런 자녀들 내지는 부모들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사라갈 데가 없다.”, “한 권 사러 그러면 시내를 가야 되냐.”고 이 소릴 많이 하세요. 이렇게 책임감이 더 생겼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아까 이야기하신 책 대여점이라는 곳이 도서관이랑은 다른 개념의 비디오방 같은 건가요?

- 아니요. 책을 이제 베스트 위주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책들을 자기네가 나름 구비해놓고, 얼마씩을 받고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제 뭐 한 권 빌려주고 얼마를 받고, 읽고서 다시 가져와야 되고 뭐 그런 저기 같아요.

어쨌거나 사장님이 그 대형서점들을 다 이겨내신 거잖아요?

- 이겨낸 건 아니죠.

대형서점이 주는 느낌과 이런 조그만 서점이 주는 느낌은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고객들이 계속 대형서점보다 이런 서점을 찾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그 지금도 꾸준히 고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오시면 저희는 나름 이게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이러면 고치지 말래요. 그냥 옛날 냄새나고 옛날 느낌이 좋대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만 90년도부터 했어요. 원래는 2년 전에 저쪽 굴다리가 저렇게 커지기 전에 저쪽 건너편에서 하다가 이 자리로 90년도에 왔는데 그때 중고등학교 다니던 초등학교 다니던 손님들이 지금은 결혼해서 아기들을 데리고 와요. 이사 온 학생들도 있고, 이제 저는 못 알아보죠. 그 학생들을.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저희 옛날에 여기 단골이었어요. 그냥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명절에 집에 다니러 왔다가, 새일서적 간판이 있어서 왔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소리 명절마다 한 2~3명은 오는 것 같아요. 진짜 반갑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 저희가 따로 뭐 극복하려고 애쓰고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그냥 욕심 없이 저희가 이제 서점을 하면서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메이커 옷이라든지 뭐 다시 신설되는 지난번 지난번이 아니라 한 2년 전인가 권리금 칠천 줄 테니까 무조건 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대로 된 우리보다 더 나은 서점이 있으면서 우리가 그만두는 거는 괜찮은데, 그 돈 조금 더 벌자고 이것을 그렇게 넘기는 건 아니다. 절대 그건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가 돈 보고 장사한 거 아니지 않았냐고 그냥 쉬운 예로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 운영이 안 될 때는 까먹기도 했죠. 집세하고 이런저런 경비에서 인건비는 관두고 예를 들어 50만 원씩 까먹었다 치자 그러면 가게를 안 하면 더 많이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그냥 50만 원 여기에 와서 놀다 가는 짝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셔라. 그렇게 하면서 서점들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됐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오십 프로 저거 해주시는 바람에 도움 됐고, 또 구청장님이 가능하면 학교 관공서 이런 데 책 구입할 때 외부로 주지 말고, 지역 서점에 줘서 도움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 그거는 참 저희가 굉장히 고맙고 큰 힘이 됐어요.

그 아까 얘기하신 책을 펴자 독서 문화 캠페인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 작년 그 작년 그렇게 했을 거예요. 2년

혹시 독서문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해줌으로 해서 책을 보고 싶은데, 또 도서관에 가고 싶은데, 거리상 못 가고 형편상 못 가는 분들이 50%에서 사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참 번거로웠어요. 이게 책 구입이 일단 들어오면 책이 반쯤이 안 되는 그런 책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반쯤 안 돼서 그냥 쳐져 있는 것. 근데 그걸 떠나서 많이 읽히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 가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우 지금도 계속 와요. 이거 안 하나, 우리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우리 사장님 자체가 구청 일이나 동사무소 일이나 동네일은 가능하면 협력을 하려고 하고 나서서 추진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려움 없었어요. 그런 걸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를 계속 들어 보니까 서점에 대한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정이 굉장히 크신 거 같아요.

- 네. 우리는 아침에도 가게 나오는 게 참 행복하고. 일요일 날도 우리는

사실 가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아기들이 평일에 시간이 없고 주일에 특히 어떤 학생들이나면 여기서 사는데 외지에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 있는 애들, 집에 다니러 왔다가 또 시내까지 갔다 오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 막 이런 애들이 가끔 와요. 그러면 개들이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고 오면 되는데, 또 그렇게 안 와볼 때도 있잖아요. 사실 안 나오고 우리도 쉬면 편한데, 그냥 나와서 한 몇 시간이라도 열어주면 전화가 와요. 지금 열어 주셨냐고 또 아니면 문자로 와요. 몇 시에 여실 거냐고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을 거예요. 하면 그 시간 맞춰서 오시고 그냥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서점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필요. 애들한테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형편이 더 되면 진짜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줘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좋은 캠페인 같은 거 있으면은 하실 생각 있으세요?

- 네, 하죠. 좋죠.

대덕구에서 오래 계신 거잖아요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대덕구란 어떤 곳인 거 같으세요?

- 저는 대전에서 대덕구가 어려운 지역인지 몰랐어요. 우리 아들 하나가 하나는 보문고를 가고 하나는 대전고를 갔는데, 그때는 추첨으로 갔는데 우리 애들도 그런 의식 모르고 공부를 하고 갔는데. 학생 친구 애들이 그 신탄이 어디붙었냐 너 강촌 아니냐 막 이래서 열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동구하고 대덕구가 이렇게 열악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가요. 우리 주민들이 정이 가요. 그냥 나도 크게 부자로 살은 사람이 아니라서 오면 같이 얘기 한참 하고 가시고

약간 그런 소박한 행복

- 그런 게 좋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서로 같은 일을 하시거든요 장사를 하시는데 가끔 일을 같이하시다 보면 투닥 거리고 싸우는 경우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사모님도 그런

- 싸우냐고요? 저희가 처음에 우리 사장님이 직장 다니셨다가 그만둘 때 친구 하나가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너. 같이 있으면 맨날 싸워. 절대 같이하지 마.” 막 이랬는데 우리는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 싸운 이유가 싸워야 돼요. 뭔가 싸울 문제가 있고 따져야 되고 근데 막 일하다 보면 이제 집에 가서 따져야지 하고 집에 가서는 또 씻고 어찌고 자기 바쁘고 아침에 또 나오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거 따져야 되는 데, 며칠 갔어요. 그러고 잊어버려서 못 싸워. 그러고 또 사람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 눈에 딱 맞게 원해요. 나도 우리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런데도 항상 이해해 주고 하니까 저도 또 이해해 주게 되고 저희 크게 안 싸워왔고 우리 문제가 아니고는 안 싸워왔고 애들 때문에 이제 가리킬 때 의견이 틀려서 조금 다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대답을 절대 안 해요. 우리 사장님 혼자 막 열 내고 따지고 막 해도 저는 말대답 한 번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 넘기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싸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서점 얘기로 조금 넘어와서 서점을 오래 운영하셨으니까, 조금 기억에 남는 손님도 계실 것 같아요.

- 많죠. 지금도 계속 오시는데, 장애 아들 장성한 장애 아들 데리고 오시는 목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오실 때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손녀를 할머니가 맡아서 키우시는데, 그분도 올 때마다

다 그러시고 책 주문을 하시면 우리 사장님이 저랑 문 닫고 갖다줘요. 할머니가 여기까지 오셔야 되니까, 오시지 말라고 우리가 배달해드리겠다고 그러면 “아이고, 책 한 권 가지고요?” 그러면 상관없다고 그래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쌍둥이 손주를 맡아서 키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이 얼굴이 항상 그들이 저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꺾아달라 소리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10% 이상 이렇게 꺾어드려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 앞으로 계획은, 그냥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이대로 쭉 가다가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만두면 안 된다 소리 들어도 또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만둘 때는 우리 사장님하고 서점 누군가 섭외를 해서 어딘가 나와서 착실하게 할 사람 할 수 있게 조금 여기 사거리가 아니라도 딱 데다가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냥 붐 뜨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숙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일 났네…….

부록3. 고려공예 김용오 구술자료 원본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랑 이제 고려공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네, 저는 그 3대 계승인 김용오고요. 저희 고려공예는 1900년부터 현재까지 1대,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김 자, 각 자, 진 자 쓰시고 아버지가 인 자, 규 자로 해서 2대, 그다음에 3대 해서 열심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배우고

- 아직까지는 뭐,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름답게 미쳐서 전통 목기에 대해서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신 부분이 전으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이수를 하셔서 마지막분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또 합류를 해서 3대째 이어 나가는 것이 저도 영광이고, 저도 앞으로 아버지하고 해서 더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우리나라의 전통목기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목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상공인사업에 고려공예가 선정되었잖아요. 그때 딱 됐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 그때 또 뭐 서류 심사하고, 6~7개월 아마 심사를 쓴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사 오셔서 보시는데, 저는 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다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인지를 했고, 거기서도 심사위원님들도 오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이유가 있는 집념에도 불구하고 한 길을 걸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 운인 거 같아요. 백년소상공인에 선정을 해줘서 저희들도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하고 때는 발표 딱 났는데. 잠을 못 잤었어요. 백년소상공인 간판이랑 현수막 또 뭐 갖다주시고,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진행을 못 했지만은 플랜카드도 주시고, 제가 걸 때도 참 마음이 좀 흡족했었고 또 오늘 손님들도 아우 대단하시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또 마케팅 판매 쪽에 선정이 또 됐어요. 지금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작년에도 도움받은 것이 시설 환경개선 지원금이라고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레이저 가공기 이거를 또 도입을 해서 요즘은 굉장히 또 활용을 하고 선정됐을 때 기분도 그렇지만 하나하나 사후 관리를 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고 더 고맙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이제 전통 목기에 레이저 각인을…….

- 요즘은 저희들 낙관을 찍고 그러지마는 예를 들어서 생활 목도 도마나 작품을 또 체험하는 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만의 글씨나 자기 이름을 써 달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인을 받아 가서 레이저로 작업을 해줘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생활 쪽에 쓰는 기물에다가 그림이나 이런 걸 그려준다고 하면 고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봉안함 각인이 있어요. 그걸 저는 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벤처기업부에서 도와주셔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기술의 조화 같은 거네요.

-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생활 쪽 플러스 디자인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맞춰 주는 거지요. 아무리 저희들이 잘 만들고 하지만, 지금 평가되는 건 아니잖아 후세에서 이 작품을 평가해주는 거라서. 서로의 고객과 제조하는 사람과 준비하는 과정과 이것이 혼연일체가 된다면 한 작품 속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느냐 쓰일 때도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활력소가 또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이점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아까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부친이신 대전무형문화재 24호 목기장이신 김인규 사장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아버지께서는 17살 때 대전으로 이제 상경을 하셔서 현재까지 이제 목기에 대해서는 나무 선별부터 시작해서 가공하고 칠하고 마지막 완성까지 오로지 전 생애를 목기에다가 전념을 다 하신 거죠. 뭐 아들로써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느 하나 만들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잖아요. 손님이 오잖아요. 상대도 안 해요. 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제수용품 목기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평탄하잖아요. 여기에 혹시 앓을 수가 있잖아요. 절하는 데다가 엉덩이 앓힌다고 되게 뭐라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또 또하나는 이거를 만드실 때 재단할 때부터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팽창계수하고 하는 것이 아버지였던 것이죠. 하나하나 하는 모습이 저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 배워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작품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혼과 정성과 그 마음을 넣어주시더라는 거지요. 저로서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나름대로 시간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보니까, 아버

지께서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근데 그 미친 것이 그 미친 뜻이 아니고, 아름답게 미쳐 가더라고요. 나무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고 그러시거든요. 뭐 원목이 들어왔을 때, 딱 방향을 보고도 아, 저거는 남쪽 북쪽 서쪽 딱 알으셔요. 제가 그냥 언론에 비쳤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못난 나무를, 산은 잘난 나무가 지키는 건 아니고, 못난 나무가 지키다. 잘난 나무들을 다 그 활용을 했으면은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겠다. 그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딱 들었을 때 진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인? 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장인의 면모? 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인 정신이란 무엇인가?

- 집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집착하고, 끈기하고, 집념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버지께서는 거기에 집착한 것도 아니고, 다른 생각 없이 어렸을 때 먹고살기 힘들니까 여기까지 흘러나오신 거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장인 정신이 뭐냐고 이렇게 보면은 그 분야에 최고는 아니지마는 아름답게 미쳤구나. 그 미친단 뜻이 거기 모든 것을 압축을 해 가지고 목기에 대해서 흘러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렸을 때도 아버님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렸을 때는 조금 더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리고 싶을 거 같은데 처음부터 이런 목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 진짜 관심 없었지요. 어렸을 때, 특히 방학 때는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목기나 닭고 건조하고 간단한 작업은 하기도 싫더라고요.

뽕질뽕질도 했는데, 조금씩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돈에 욕심이 있었지.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회에 제가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몇 달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니까 우동을 가지고 4대인가 5대인가 하면서 뭐 그냥 잘난 척을 엄청 하더라고요. 거꾸로 생각을 했지요. 우리 집도 100년이 넘었는데 저거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 회갑 때 과감히 나 이거 한다고 했거든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이 험난한 고생을 내가 왜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고. 내가 새빠지게 고생했는데, 네가 뭐 부족한 게 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 그냥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삼배를 하더라고요. 회사 그만뒀버렸지요.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뭐 불도 많이 났고, 특허도 도용당해서 뭐 5년 시련 겪었지. 그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100년이 넘고 맥을 갖고 하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맥이 끊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나간 걸 회사를 해보면은 빨리 일을 했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그때는 뭐 개구리가 멈추고 뛰다 멈추고 멈추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비싼 수수료 많이 들여보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이런 부분에 전념하고 이렇게 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있잖아요.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자부심이 대단하신 거 같아요. 대표님이 그 보통 그런 일 겪고 나면 내가 이 길을 왜 왔나, 이 길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대표님 반대로 조금 더 일찍 더 배워들 걸 이렇게 얘기하셔서 대단하신 거 같아요.

- 보통 사람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부정 속에서 저는 긍정 있다고 보거든요. 보는 관점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 어느 누가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좋다 한번 해 보자. 내가 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무지하게 많지마는, 하나하나 그 원인을 파악해서 두 번은 안 맞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버지같이 미쳐 가려고 지

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저한테 적거든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 작품별로 다 달라요. 그 주제가 있습니다. 뭐 아버지도 그러시지만, 무늬를 가지고 작품 구상을 하니깐요. 재미가 있으면서도 뜻이 있고 뭐 그러더라고. 어떤 때는 뭐 해가 뜨고, 산이 나오고, 들이 나오고 어떤 형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발견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탁 만드는 거지요. 소비자분들이 나는 산을 좋아해, 나는 들을 좋아해, 어떤 동물의 무늬나 이런 걸 좋아하는 부분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저는 발견을 해요. 그렇게 그게 따로 상담했을 때, 선별을 해봐요. 유도를 하는 거지요. 병풍 마냥 작품의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럴 때 아, 이거구나. 그분들한테 내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든 전통문화가 그분에게 맞게끔 맞춰 주면, 이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향에 맞게끔 찾아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열 개 중에 한 개 나올까 말까 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맞춰줌으로써 그분하고는 인연이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람도 있지만은 다음 분한테는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에 기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거죠. 지금도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나는 그런 부분이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훈훈하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3대째 해오시고 계시는데 4대째나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 네 계획은 좀 많지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대를 이으는거 저까지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마냥 애들한테는 주고 싶다는 얘기는 감히 못 하고. 제가 선택을 했듯이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선택을 하

라는 거지 단지 부모로서 다른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애들한테도 내가 너 이거 해라.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은 자기가 미쳐서 해야지 선택을 해서 해야지 후회를 해도 자기가 후회를 하고 뭐 성공을 하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고 보고요. 판단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족담기 저 부분에 과정은 저희들 가문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천기술이 이제 구동력, 구동 장치에 원동력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제가 등록시키는 거, 그래서 준비는 한 60%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기 박물관인데 또 안 되더라도 내가 이제 설계나 플랜 뭐 이런 거 다 지금 레이아웃은 잡아 놨는데, 그거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거 같아요. 옛날 고대목기부터 문화재 리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목기 되는 것을 구입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쪽에다 이렇게 다 해서 예들 들어서 박물관 해 놓으면 그래도 문화재니까, 지역적 인프라 구성이 많고 대덕구가 5대 구 중에서는 문화적인 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인프라 구축도 여러 가지 많이 돼 있고, 그러면은 하나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한번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하고 그러면은 뭐 유네스코나 박물관이나 또 이 대전에 기점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고속도로 가깝고 뭐 경매도 한번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혼자서 안 되지만 그런 바램으로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뭐 우리 5년 전에 무형문화재 한 달 동안에 특별 전시를 했거든요. 거기 주제가 오래된 미래거든요. 오래된 미래에 대해서 생활적인 면을 무형문화 원형 보존도 보존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가되, 거기에다가 디자인 어떤 융합으로 해서 같이 간다고 하면은 카테고리도 금속도 있고, 섬유도 있고,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네 가지의 카탈로그를 융합을 해서 내꺼가 중요하면 남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우리 전통문화도 발전이 되면서도 대덕구에서도 문화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을 서로 협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대전시 중에서는 단단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참여도 해보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거는 객관적인 대덕구의 모습이라고 하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대덕구는 어떤 곳일까요.

- 지금까지 여기서 30년 살았었어요. 대덕구에서요. 소외됐지 않느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 소외되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가 빠진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 어떤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육이겠죠. 왜 대덕구를 떠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떠나는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던 말이야, 근데 좀 속된 말로 총대 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덕구2는요.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소외됐고 떠나잖아요. 왜 떠나느냐고 메리트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요즘 와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지 말고 그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록4. 신탄진주조 유허철 구술자료 원본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 저는 농업회사법인 신탄진주조 주식회사 대표 유허철입니다.

신탄진주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탄진주조는 2001년도 신탄진 양조장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어서 2016년도에 이제 신축 이전을 해서 이 자리를 왔어요.

지금 신탄진주조 자녀분들이랑 같이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가족 소개랑 그리고 유씨종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아내 노점옥 여사와 큰 아들 유석현, 작은 아들 유진현, 큰며느리 이지영 과 가족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집안 경사나 행사 있을 때, 가양주를 담가서 손님을 대접하곤 했어요. 그 우리가 충북 보은 회남면 서탄리에서 한 6~7대의 손 이 마을을 이루고 이제 살았는데. 대청댐 공사로 인해서 신탄진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종갓집에 연을 맺게 됐어요.

그러면 가족들이랑 같이 운영하시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 하나, 나쁜 점 하나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 우선 가족이니까 모든 걸 믿고 이제 서로 생활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라면 서로 의지하면서 믿고 있으니까. 좀 책임감이 좀 없다고 그럴까. 나타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전통주 자체가 대중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지금 신탄진 주조에서 어떤 전통주를 만들고 계신 건가요?

- 전통주는 그 노년층과 여성분들이 참 즐겨 찾는데,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는 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층을 생각해서 단상지고와 하타를 개발을 해서 농촌진흥청과 제가 지금 연구, 개발하여 하타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술을 좀 선호하거든요.

그거는 다른 전통주랑 차이점이?

- 전통주는 찹쌀과 누룩으로 빚어서 옛날 명절 때나 기제사나 이런 뭐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뭐 맑은 동동주를 해서 이렇게 담가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분들, 노년층들은 잘 아는데. 이제 젊은 분들은 그 술을 접하지 못했으니까. 누룩 향이나 이런 게 나는 게 좀 선호도가 적더라고요. 그러가지고 하타라는 그 술은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국산 토종으로 쌀로만 빚어 가지고 아무런 가미 없이 오래 숙성을 시켜서 제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참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맑은 청주이니.

그러면은 주조 사업을 하게 된 계기 한 번만 다시 얘기해주실래요

- 우리가 처음에 막걸리를 같이 접했었어요. 한 2001년도 90년도에, 그전에는 유통이라는 게 직매점. 지역에 가게나 식당이나 이렇게 유통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조장이 그때만 해도 막걸리에 대한 선호도가 소주, 맥주에 치어가지고 제일 바닥 있을 때, 제일 낮았을 때, 양조장 인수를 해서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주조사업하면서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 소비자들이 워낙 막걸리 선호를 안 해서 판로가 또 없었어요. 그때 참 어려웠죠.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 했으니까 그때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드셨는데 주조장을 그만해야지라고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신 건지?

-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몇 년간을 하다 보니까. 생막걸리라는 바람이 불면서 그때부터 막걸리가 상승세를 땀죠.

신탄진주조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모두 훌륭한 제품이겠지만, 전통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한다고 하시면 어떤 걸 가장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하타는 젊은 층. 단상지교는 노년층, 여성분들. 선호하는 구분이 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이 술이 참 효자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대덕구에 몇 년 정도 계신 거죠?

- 대덕구에 올해 한 사십 한 오 년?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대덕구는 어떤 곳인가요?

- 대덕구는 대청호와 계족산 황톳길도 있고, 또 이제 그때 3, 4공단이 들어와서 소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어요. 사는 데는 참 좋은 고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회사의 운영 방향과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예, 물론 누구나 다 맛있는 막걸리와 소비자들한테 충족시켜야 되지만, 우리 이제 질 좋은 제품과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이제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 글썄요? 욕심은 뭐 다 똑같은 욕심이 겠죠. 무궁무진하게 성장해서 소비자분들한테, 맛있는 술을 싸게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죠.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신탄진주조가 다른 양조장과 다르게 차이점을 두는 것이 있다면?

- 저희들은 이제 제품을 항상 좋은 물건으로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마실 술이 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재료, 물 또 마음 이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 네.

<큰아들 유석현님>

신탄진주조에 대해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신탄진주조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2001년에 신탄진 산막이란 동네에 1959년부터 운영하시던 양조장을 인수하셔서 지금 생유막걸리라고 불리고 있는 막걸리 한 종을 만들기 시작해서 신탄진주조를 시작을 하셨고요. 약주 한 종 농진청이랑 같이 연구개발에서 만들어진 청주 한 종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신탄진주조입니다.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 부모님이랑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장점은 많아요. 편의 볼 수 있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고 계시잖아요. 노하우와 경험이 쌓인 게 있으셔서, 근데 저는 이제 요즘 트렌드와 생산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그걸 설명 드리고 바꾸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뭐 힘들 때는 서로 같이 힘내서 일하고 좀 한가할 때는 좀 쉬기도 하고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서는 바로 양조장 일 도와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 저도 제 직업이 있고 원래 소속해 있던 직장에서는 나름 인지도를 가지고 능력 발휘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1년 양조장에서 일로 이전하면서 확장도 하고 새로운 설비들도 많이 들여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게 된 거죠. 근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뭐 하나 이뤘을 때 성취감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더 좋고요. 기쁨은 두

배, 슬픔은 반으로 주는 것 같고 가족끼리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전통주의 매력은?

- 아직도 모르는 게 매력이예요. 그 계절에 그 습도와 그때 저희가 원재료를 사서 만들잖아요. 그거에 개성에 따라서 술맛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률적으로 만드는 게 기술과 노하우라고 어머니가 매번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그거를 백프로 만들어내질 못해요. 저는. 그 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도 주조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 일단은 판로 개척이죠. 저희도 저희보다 큰 업체들이 이제 대규모 유통망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해서 판로 개척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요 근래에는 온라인 판매를 전통주만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서울, 부산까지 납품하는 거래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해결되고 있고요. 저희 막걸리도 대전, 요 안을 벗어나기는 엄청 어렵거든요. 막걸리로 진출하는 시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죠.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신탄진주조의 강점?

- 강점은, 농진청이랑 같이 균주부터 연구 개발할 때 같이 참여했던 하타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은 저희밖에 못 만들어내는 술이죠. 비슷하게는 만들어도 똑같은 만들 수 없거든요. 이 제품이어야만 한니까. 홍콩, 중국도 저희 같은 작은 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장 큰 자부심과 장점이 있죠.

**하타랑 단상지교의 역사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대덕주가 시작이었어요. 막걸리보다 더 고급스러운 술을 처음 만들어낸 게 대덕주거든요. 역사는 가양주기 때문에 몇 년도 다 이걸 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라고 저희는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상지교는 칠 년 전에 저희가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소기업이 연구개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대덕주를 업그레이드하자는 방향을 바꿔서 일체의 감미료가 없이 누룩, 찹쌀, 물 그리고 멥쌀 요렇게 빚어서 레시피를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 내신 거죠. 하타는 연구개발한 건 꽤 오래됐어요. 그 균주가 특허를 농진청에서 낸 균주를, 저희 회사로 가가지고 와서 처음 생산해 낸 게 지금으로부터 한 육 년 전? 이렇게 하타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되기 시작한 건 한 사 년 전부터 불과 일 년 반 전부터 팔리기 시작했고, 그전까지는 거의 샘플 수준으로 만들다가 지금은 꾸준히 생산할 정도의 캐파가 나오고 있어요.

**전통주 대중화를 위해서 사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방향에 노력은 한 게 있을까요?**

-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저희 이사님이시라고 이제 직책이 이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꿈꾸는 양조장이 있으세요. 술은 어른들만 즐기잖아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만 전통주를 즐겼단 말이에요. 몇 년 전까지. 그래서 삼대가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막걸리, 청주, 약주 요렇게 있었는데. 농진청에 거품 막걸리라는 특허받아서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파티할 때 샴페인을 터뜨리고 하잖아요. 그 막걸리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이전 해와서 거품 막걸리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기술이거

든요. 막걸리가 샴페인처럼 뽕 터져요. 그리고 먹어보면 막걸리와 맥주의 약간 중간 느낌? 그래서 깔끔한 목 넘김도 있고, 탄산도 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맥주만큼의 탄산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저희 샴페인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따랐을 때도 잔에 담긴 모양도 너무 예쁜 제품이 있는데. 제조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막걸리란 인식 때문에 판매할 루트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개발된 완성해 왔는데, 시제품 생산 좀 못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젊은 사람들까지 즐기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20대 청년들이랑 같이 와서 즐기기도 하고 만들어보기도 하는 체험장을 이제 이층에 지어서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가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어머니 꿈이셔서 그렇게 하려고 거품 막걸리라는 제품을 저희가 개발도 했었죠. 그런데 이게 개발이 다가 아니라 판매가 다가 든요. 판매가 안 되니까, 판로를 못 찾아서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탄진주조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거라는 포부 같은 걸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 원래 신탄진주조는 저희만의 제품으로 승부를 끝까지 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유통기한이 길은 살균막걸리나 살균제품을 아예 만들지 않았었어요. 살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맛도 떨어지고, 유통기한을 늘리다 보니까 그 안에 좋은 효소나 미생물들이 다 죽어 없어지니까. 그런 제품을 만들지 않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즈음, 저희가 종원 대표님이 골목식당 촬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박유덕이라는 친구가 백종원 대표님이랑 지금 같이 만드는 골목막걸리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 양조장이 너무 작아서 대량 생산이 어려워서, 그 제품을 저희가 계약으로 이제 생산을 이번 달부터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술력을 가지고 그 기술력이 특허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통기한이 되게 길어져요. 살균을 하지 않는데도

안에 이제 효모가 살아 있는데도. 그러면 저희가 추구하는 유통하기 좋은 유통기한 구조가 변경이 되면, 기술을 이제 생산하다 보면 저희도 익히지않아요. 그러면 저희 제품도 유통기한을 더 길게 해서 더 멀리까지 수출도 하고 제주도까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신 거죠?

- 그렇죠.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막걸리가 사실 30일이라는 유통기한이 길은 것 같은데, 생산해서 그다음 날 배송이 오면 배송차에 실어서, 유통상에 가서 유통상에서 또 그 지점으로 가서, 그 지점에서 가게까지 퍼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막걸리는 전국 판매하려면 당일, 이 콜드체인이 없으면 저희 같은 업체들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해소가 되면, 판로 확보하는데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이, 그 기술을 연구하고 저희 시험 생산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도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부록5. 옛날튀밥집 최용운 구술자료 원본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신탄진에서 53년째 뽕튀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용운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 사장님 여기서 장사를 계속 오래 하셨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 한 30년 하시고, 할아버지가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23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좀 집안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오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튀밥집을…….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죠? 튀밥집을 이어가는 게 꿈은 아니셨던 거네요?

- 튀밥집을 이어받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부모님 일을 도와주며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취직할 나이 되니까 마땅한 직장도 없고 아버지 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로 접어들었는데, 제가 만드는 거나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런 거를 잘했던 거 같아요. 뽕튀기도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것 좀 재미가 있고, 자기

가 기계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거니까, 그런 거 만드는 게 재밌어가지고 계속하게 됐어요.

아버지께 이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 아버지가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 가지고 그냥 어디 어설픈 데 가서 취직하느니, 이것도 하는 것도 괜찮고 하니까 한번 해 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도와드렸지요. 돈 벌 수 있는 거를 해 보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그냥 아버지 말 듣기로 했어요.

한국의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장님 자체분께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시면 반대하는 입장이세요? 찬성하는 입장이세요?

- 제 아들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가 지금부터 하겠다 말겠다 하는 거는 생각이 없는 거 같고, 자기도 커가면서 사회도 느끼고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돈 벌 수 있고, 자기가 그리고 원하는 게 뭐고, 뭘 하면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근데 권유하고 싶진 않고, 자기가 이제 직장도 다녀보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느낀 게 있을 때 자기가 얘기하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가 그런 얘기 할 정도 되면 미래를 대충 그려 봐야 되거든요. 한 10년, 20년 비전이 있다. 느끼는 게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남들이 우습게 보는 면이 있는 가게지만 오래 하셨잖아요. 사장님만의 소명 의식이나 자부심 같은 게 있으실 거 같아요.

- 있죠. 남들은 그냥 백 개 튀겨서 한 구십 개 정도는 그냥 빵기계에 넣고 시간 맞춰가면 잘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열 개 저는 그 열 개 가지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대개는 잘 나오는데, 백 개중에 이제 열 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좀 더 맛있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들은 은퇴하면은 하는 그런 빵튀기로 알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 은퇴하면은 다 빵튀기한다고 돌아다니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거 열 개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자부심 같아요.

기사에서 조금 봤는데 다양한 걸 해보셨더라고요. 가장 조금 힘들었던 재료가 있을까요?

- 곡식이 지저분하다고 콩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행구시는데 콩을 그렇게 하면 특성이 변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맞추기가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누룽지 할 때 하도 묵은 거 버리기 아까운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조금 더 맛있게 맛있게 튀겨줄까, 그 사람도 버리기 아까워서 가지고 왔잖아요. 묵은쌀 이런 거 묵은쌀도 이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그렇게 부탁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인상 깊게 남았던 손님분이 계실까요? 그런 에피소드?

- 저희 아버지 때 많이 튀겨 드린 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가끔가다 생각 나가지고 자기 옛날에 많이 왔다고 아직도 가게 한다고 하면서 가끔 한두 번 튀기러 오세요. 아버지 때부터 많이 튀기셨는데 고맙죠.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그분이 여기 옆에 사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멀리 사세요. 세종에도 살고, 저쪽 대전 둔산동에도 살고…….

그럴 때 기분이 조금 묘할 거 같아요. 사장님이 어렸을 때 보셨던 분

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니까.

- 감회가 새롭죠. 아버지 때 튀겨 먹었던 거 생각하고, 빵튀기로 오신 게 아니라 빵튀기 가게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나 이게 궁금하신 거 같아요.

**사실 지금 경제가 불황이기도 하니까 궁금하긴 하죠. 이렇게 오래 하
실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 있죠. 장사라는 게 꾸준하게 잘 되면 되는데,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는 이제, 그때는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가을에, 가을에 이제 농거지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에는 가을 추수철이 그때가 비수기더라고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저는 하도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여름에는 집에서 조금 쉬시고, 이제 가을부터 봄까지 그때 이제 좀 많이 나오시는 거 같아요. 그 기후에 따라 옛날 농사지를 때는 이제 6월 달, 이런 때는 모내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미숫가루 많이 드신다고 막 엄청 많이 하러 왔어요.

계절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받나 보네요.

- 그 시대 때하고 지금 이 시대 때 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사장님 가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 저희 이제 옥수수나 쌀 이런 거는 튀겨 놓는데, 그런 것 조금 나가고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워서 그런데 가을 같은 경우 가을부터 이제 내년 봄까지 강정 팔아요. 쌀강정, 깨강정 응용해서 팔고 있어요. 그런 거 강정도 마트 같은 데 가면 다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랑 많이 틀리게 한 거지요. 강정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으니까, 땅콩 같은 것도 듬뿍 넣을 수도 있는 거고, 호박씨도 듬뿍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강정이 매출을 많이 좌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숫가루는 옛날에 드시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연세들이 있고, 미숫가루를 통으로 만드는 이유가 옛날에는 많이 해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도 이제 다 도시로 나가시고 하니깐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지금은 핵가족이고 조금씩밖에 안 드시니까 산업화가 하도 돼가지고, 마트나 대형마트 가면 먹을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게 차별화되는 거고 꾸준히 나오는 거는 서리태나 옥수수, 쌀 이런 게 그리고 이제 튀기러 오시는 거, 사람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튀기러 자기가 재료를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 해주고 그냥 그거 수공이나 받고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다 재료 가지고 와서 튀기는 거였죠.

미숫가루 통이 되게 특이해요. 안 갈아 놓시고 안에 뭐가 다 들었는지 보이게 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 한 번 설명해주세요.

- 저희도 옛날에는 미숫가루를 갈아놓고 팔았는데, 요즘엔 현대에 맞게끔 들어간 재료가 몇 가지 들어갔는데요. 비율도 어느 정도 들어간 것도 봐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죠. 서리태나 쌀이나 보리나 귀리나 옥수수나 그다음 병아리콩이나 이게 다 들어갔다 확인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갈아 놓지 않고 바로 갈아주면 맛이 더 있어요. 갈아 놓지 않고 팔아요. 사람들이 오면 이제 성격 급한 사람은 이제 갈아 놓은 거 파는데.

튀밥집 하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세요?

- 튀밥집 하면서 가장 즐거움은 튀밥집도 이제 오래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직장을 다니던 아까도 말했지만, 땀기는 것도 재밌고요. 사람들이 곡식을 가져오는데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상한 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그걸 잘 튀겨 줘야지 그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지요. 이게 튀겼는데 잘 나왔을 때, 그때가 재미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튀겨줬는데 그걸 집에 가서 먹고 누구한테 나누어 주던지 같이 나누어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할 때. 근래에 쌀 튀밥 많이 튀기러 올 때 튀겨주니까 먹고서 맛있다고 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결과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왔어요. ‘왜 또 왔지? 뭐 잘못했나?’ 그런데 맛있어서 또 튀기러 왔다고 그때 보람 있죠. 가지고 온 걸 만들어 주잖아요. 만들어 주는 재미. 그걸로 다 하는 거죠. 세상일이 재미없으면 못 해요. 재미가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튀겨주고 그러는 거지 재미없으면 다른 일 해야지.

반대로 어려운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 있지요 여기가 큰 압력 통이잖아요. 기계니까 압력이 세게 들어가면 기계가 부러져요. 약한 부분이 그럼 이 기계가 어디 뭐 세탁기나 컴퓨터처럼 돈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장 가서 주문해야지,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뭐 공장도 우리나라에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경상도 쪽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 쪽에 있는데. 경상도 하고 서울하고 경계 지점이 충청도인데 서울 쪽 기계 쓰시는 분도 있고, 경상도 쪽에 쓰시는 분도 있는데 기계가 약간 틀리고요. 기계가 수급이 되어야 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가 최고 골치가 아파요. 기계도 완전히 고장이 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장 나면 이거를 공장 가서 고치기도 뭐하고 하면 다 분해해가지고 공업사나 이런 데 가서 맞게끔 고쳐오는 게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장사니까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고 제일 어려운 거는 기계 고장, 기계니까……. 공장에서 기계는 새로 사 오는 건데 이거는 특수한 기계라……. 기계를 고치러 가도 사람들이 무슨 기계인지는 아는데 조금 정밀하게 요즘 나온다는 건 모

르고 그런 거 고치려 가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런 기
계가 있나?’ 시선은 제가 20년 넘게 했으니까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
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던지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 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뺄 못 튀기죠 뭐.

사장님 고향은 대전이신가요?

- 신탄진에서 나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다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금까지 뜬 적이 없는 거예요.

오래 계셨는데, 사장님이 생각하는 대덕구는 어떤 곳이에요?

- 대덕구는 살지 좋죠. 사람들이 이제 신탄진 같으면 외지로 대덕구 같으
면 뒤에 대청댐도 있고 하니깐 사람들이 인심도 좋고, 고집도 있고 충청
도 사람들이 원래 말수도 적고 한데, 또 깊이 사귀면은 잘하고 충청도
사람들이 대덕구에 이런 사람들이 한번 잘해주면 잘 안 바꾸죠. 성격들
이 물 흘러가듯 금강처럼 유순하게 잘 흘러가는 거 같아요. 주변에 싸우
는 사람도 없어요. 가게나 이런 데 가서도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도 없
고, 자기 일하면서 술 마시고 이런 거 같아요. 다른 도처럼 시끌벅적한
그런 건 없어요. 전체적으로 대덕구도 그렇고 대덕구는 다른 대전시 전
체적으로는 낙후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대덕구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대덕구가 좋으니까 오래
살죠. 대덕구가 정겹고 좋아요. 서구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주택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어가지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대덕구는 그
래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살만한 동네예요.

앞으로의 계획 한 번 얘기해주세요.

- 앞으로 계획은 BBC World에 나오는 거……. 농담이고요. 지금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기존에 있는 거를 응용해가지고 조금 더 계속 가게를 유지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조금 많이 만들어보고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급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은 가게를 계속 유지하려면 기존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걸 가지고 오더라도 다르게. 왜냐하면 매일 그것만 있거든요. 다른 걸로 새롭게 응용하고 싶어요. 만들어보고 싶고 계속 그러면서 가게를 유지해야죠.

2022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구술자료 아카이브



발행일 2022. 9. 3.

발행처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2022



대덕소리 아카이브